

## 우리 나라의 명절과 음식에 관한 주부들의 인지도 연구 - 서울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

조후종 · 조진아 · 최성은\*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A Study of Housewives' Attitudes on the Festive Days and Dishes in Korea -In the Region of Seoul and Choongchung Province -

Hoo-Jong Cho, Jin-Ah Cho and Sung-Eun Choi\*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Myong-ji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termine the dishes most commonly served during various festive days. This research studied the habits of housewives in Seoul and in the Choongchung province who have children in high school.

1. Most of the housewives in Seoul graduated from high school. On the other hand, those in the Choongchung province graduated from elementary school in their education backgrounds. The monthly income ranged from 1,550,000won to 1,190,000won for the housewives of Seoul, and from 1,000,000won to 1,490,000 for those of Choongchung. The nuclear family system was dominated in both areas and 63.8% of the housewives had a full-time job.
2. "Sulnal(The New Year's Day), Chusuk(Thanksgiving Day), Jungwol-daeborum(The 1st Full-Moon Day)" are among the festive days celebrated in 85% of the both areas, and "Yuwol-Yudu(6th, June), Chungyangjul(9th, September), Naphyang(8th, December)" were celebrated in 0.5%.
3. Traditional festive dishes with respect to the festive days were as follows, Tuckuk(rice cake soup) was a favorite food in Sulnal(The New Year's Day), Burum(peanut, pine-nut, walnut, etc) in Jungwol-daeborum(The 1st Full-Moon Day), Samgyetang(chicken soup) in Sambok, Songpyen(rice cake) in Chusuk(Thanksgiving day) and Patjuk(small red beans soup) in Dongji (22th, December). No significance was found in the number of dishes.
4. The Regional differences the festive days such as Sulnal(The New Year's Day), Ipchun(4th, February), Jungwol-daeborum(The 1st Full-Moon Day), Samwol-samjit(3th, March) Sawol-chopail(Budda's birthday), Tano(5th, May), Yuwol-yudu(6th, June), Chilwol-chilsok(7th, July), Suddal-gumum(The year's last day) were very significant.

5. The festive days should continue. On the other hand, the menu(dishes) of the festive days should be simplified.

Key words: housewife, festive day, festive dish.

## I. 서론

한반도의 명절의 기원은 부여의 正月 영고, 고구려 十月 동맹 등에서 그 맥락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삼국시대 말경부터 주·부식을 분리한 한국 고유 식사형태가 형성되었고, 고려시대에 와서는 삼국시대 말의 주·부식 분리 유형의 일상식 구조 외에 여러 가지 의례음식 구조가 마련되어 음식의 조리방법이 발달하는 등 구조적으로 한국 음식이 완성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이 음식구조에 민간신앙적 원시종교 형태가 가미된 공동 생활의 폐가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명절행사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현대의 명절행사는 풍토와 역사, 사회 속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최선의 타당성을 얻어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명하게 반복하여 일상생활에 전승된 것이라 한다<sup>1,4)</sup>.

따라서 조상들의 이러한 명절은 해마다 시기와 방법이 반복되는 주기성을 가진 농사짓는 일과 연관성을 가지며, 또한 자연환경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농경문화권을 배경으로 한 전통적인 음식풍습으로 그 계절에 맞는 특별음식을 즐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매달의 명절, 즉 설날(정월초하루), 삼월삼짇날, 단오, 유월유두, 칠월칠석, 중앙절 등과 같이 거의 매월 그 달의 이름과 짝이 맞는 날에 별식을 해먹는 방식 또한 특이하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은 계절에 따라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보충하였다<sup>5,6)</sup>.

그러나 농경문화가 우리의 생활 근간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농촌의 이농현상, 도시집중, 핵가족화의 보편화, 서양문물의 도입 등으로 명절의 시행과 전승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공감을 잃어가고 있으며, 명절의 전통적 의례보다는 형식과 명분이 우선시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sup>7)</sup>. 더욱이 현대에 와서

는 우리의 전통명절보다는 외래의 풍습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명절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민속학과 풍속학에서 문헌연구분야로서 많이 다루어졌으나 명절에 마련하는 음식에 관한 조사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가정생활 속에서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적 고유문화를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더 나아가 서울 가정과 지방 가정의 주부들간에 지역적 유의성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명절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앞으로의 변화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가를 예측해 보며, 또한 명절시행 정도와 명절음식의 상차림에 대해 실생활에 맞는 합리적 계승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120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질문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수정한 것으로 2문항을 제외한 25문항과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 8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서울의 은평구와 충청북도 음성군 일부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주부들을 대상으로 1997년 7월 5일부터 7월 12일에 실시하였다. 각 지역의 학교에 의뢰하여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되도록 하여 설문지를 어머니가 기입하도록 하였고, 담임선생님과 연구자가 회수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250부씩 배포하였으나, 회수된 서울의 218부, 충청의 211부 중 내용상 미비한 것을 제외하고 각각 200부씩을 자료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기존의 문헌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조사대

상자의 가정의 일반사항, 가정에서 시행하는 명절 행사와 그 제반사항, 각 명절별 상차림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명절은 설날, 입춘, 정월대보름, 삼월 삼짱날, 한식, 사월초파일, 단오, 유월유두, 삼복, 칠월칠석, 추석, 중앙절, 시월상달, 동지, 납향, 선달그믐 등으로 구분하고 우리의 명절이 현대에 와서 그 명맥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를 연구해 보고자 했다. 선행된 조연숙과 나문숙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행사는 제외하였으며 각 가정에서 시행하는 명절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sup>8-10)</sup>.

#### 1) 가정의 일반사항

가정의 일반적인 배경변인으로 연령, 학력, 종교, 월수입, 가족형태, 가족원 수, 주거형태, 주부의 취업 여부, 거주지역 등으로 나누어 8문항으로 하였다.

#### 2) 가정에서 시행하는 명절행사와 그 제반사항

각 명절의 시행정도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제반사항으로 9문항을 두어 명절행사의 계승 여부와 희망하는 명절 등을 포함하였다.

#### 3) 각 명절별 상차림 내용

명절에 차리는 전통음식을 행사별로 표하도록 16문항을 두었다.

### 3. 자료분석

각 문항에 따라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명절행사의 시행에 있어 지역이 변수의 가치로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배경변인에 따른 지역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두 지역을 구분하는 준거로서의 가치 평가는 요인분석으로 하였고, 이 모든 계산은 SAS로 처리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400명으로 서울지역 주부 200명 과 충청지역 주부 200명이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배경에 따른 가정환경변인을 살펴보았다(Table 1). 주부의 연령은 두 지역에서 41~50세가 75.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학력은 서울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이 67.5%, 초등학교 졸업은 2.5%였으며, 충청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이 10.5%, 초등학교 졸업이 50.5%로 지역간 다소 학력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교는 서울에서 무교가 30%, 기독교가 29.5%, 불교가 23.5%, 천주교가 11.5%, 충청은 무교가 38.5%, 불교가 32.5%, 기독교가 18%, 천주교가 12.5% 순으로 나문숙의 연구(1989)<sup>8)</sup>에서 보다 무교의 비율이 다소 많아졌고, 지역적으로 서울에서 기독교가, 충청에서는 불교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은 서울이 150~199만원이 30%, 250만원 이상이 29%였고, 충청은 99만원 미만이 35.5%, 100~149만원이 41.5%로 두 지역간 월수입은 큰 차이를 보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서울에서 88%, 충청에서 67%, 가족원수는 서울은 3~5명이 59%, 충청은 5~6명이 57%로 충청의 가족원수가 많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서울에서 단독주택이 35%, 연립주택이 29.5%, 아파트가 33%로 고르게 분포한 반면, 충청에서는 단독주택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도 전체 63.8%로 높은 분포를 보여 지역간 시간적 여유가 많은 주부들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나문숙(1989)의 연구<sup>8)</sup>와 비슷한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 2. 명절 행사내용

지역에 따라 현재 시행하는 명절과 계승하고 싶은 명절을 알아보고, 앞으로 소멸 가능성이 있는 명절을 살펴보았다(Table 2).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명절(A)순위는 두 지역(서울·충청)에서 3대 명절인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이 85%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계승하고 싶은 명절(B)에서는 두 지역에서 A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유월유두, 중앙절, 납향 등이 0.5%미만으로 나타나 앞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명절로 나문숙(1989)의 연구<sup>8)</sup> 결과와 일치하였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명절의 백분율(A)과 계승하고 싶은 명절의 백분율(B)의 차(C)를 살펴보면, 앞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tem	Region	Seoul		Choongchung		Total	
		N	%	N	%	N	%
Age	31~40	30	15.0	29	14.5	59	14.8
	41 ~ 50	156	78.0	146	73.0	302	75.5
	51 ~ 60	4	2.0	24	12.0	28	7.0
	above 61	0	0	1	0.5	1	0.2
Education	Elementary school	5	2.5	101	50.5	106	26.5
	Middle school	27	13.5	77	38.5	181	45.5
	High school	135	67.5	21	10.5	156	39.0
	College or higher	31	15.5	1	0.5	1	0.3
Religion	no religion	60	30.0	77	38.5	137	34.3
	Buddhist	47	23.5	65	32.5	112	28.0
	Christian	59	29.5	36	18.0	95	23.8
	Catholic	23	11.5	25	12.5	48	12.0
	Others	1	0.5	8	4.0	9	2.3
Income (1,000won)	under 990	3	2.0	71	35.5	74	18.5
	1,000~1,490	35	17.5	83	41.5	118	29.5
	1,500~1,990	60	30.0	29	14.5	89	22.3
	2,000~2,490	43	21.5	10	5.0	53	13.3
	above 2,500	58	29.0	7	3.5	65	16.3
Family system	Nuclear family	176	88.0	134	67.0	310	77.5
	Large family	24	12.0	66	33.0	90	22.5
Number in Household	under 2	4	2.0	5	2.5	9	2.3
	3 ~ 4	118	59.0	41	20.5	159	39.8
	5 ~ 6	69	34.5	114	57.0	126	31.5
	above 7	9	4.5	40	4.0	13	3.3
House form	House	70	35.0	175	87.5	245	61.3
	Multi /access house	59	29.5	8	4.0	63	15.8
	Apartment	66	33.0	13	6.5	79	19.8
	Others	5	2.5	4	2.0	9	2.3
Occupation	Worker	66	33.0	42	21.0	108	27.0
	Housewives	113	56.0	142	71.0	255	63.8
	Part time	21	10.5	16	8.0	37	9.3
Total		200	100.0	200	100.0	400	100.0

으로 가정에서 각 명절의 시행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여전히 시행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로, 앞으로 시행 정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로 표했다. 즉, 3대 명절인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 앞으로도 꾸준히 계승·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지의 경우 서울은 +13.5%, 충청은 -10.0%로 두 지역간 큰 차이를 보였고, 잊혀져 가는 정도가 가장 큰 명절

로는 서울에서는 시월상달이 -28.0%로 높게 나타났고, 충청에서는 정월대보름이 -13.5%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인 차이로 서울에서는 단오(+2.5%), 동지(+23.5%), 선달그믐(+4.0%)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충청의 경우에는 3대 명절 외에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명절행사에 마련하는 전통음식

**Table 2.** The present state of celebrating the festive days

Festive season	Region		A				B				C			
			Seoul		Choongchung		Seoul		Choongchung		Seoul		Choongchung	
	N	%	N	%	N	%	N	%	N	%	N	%		
Sulnal	191	95.5	197	98.5	188	94.0	196	98.0	-3	-1.5	-1	-0.5		
Ipchun	9	4.5	9	4.5	10	5.0	9	4.5	+1	+0.5	0	0		
Jungwol-deaborum	171	85.5	166	83.0	139	69.5	139	69.5	-32	-16.0	-27	-13.5		
Samwol-samjitnal	5	2.5	10	5.0	1	0.5	7	3.5	-4	-2.0	-3	-1.5		
Hansik	48	24.0	53	26.5	43	21.5	39	19.5	-5	-2.5	-14	-7.0		
Sawol-Chopail	23	11.5	35	17.5	20	10.0	25	12.5	-3	-1.5	-10	-5.0		
Dano	14	7.0	36	18.0	19	9.5	32	16.0	+5	+2.5	-4	-2.0		
Yuwol-yudo	1	0.5	1	0.5	0	0	1	0.5	-1	-0.5	0	0		
Sambok	76	38.0	63	31.5	49	24.5	40	20.0	-27	-13.5	-23	-11.5		
Chilwol-chilsok	12	6.0	21	10.5	9	4.5	17	8.5	-3	-1.5	-4	-2.0		
Chusok	189	94.5	197	98.5	186	93.0	194	97.0	-3	-1.5	-3	-1.5		
Jungyangjul	1	0.5	0	0	1	0.5	1	0.5	0	0	1	0.5		
Siwol-sangdal	59	29.5	11	5.5	3	1.5	9	4.5	-56	-28.0	-2	-1.0		
Dongji	46	23.0	80	40.0	73	36.5	60	30.0	+27	+13.5	-20	-10.0		
Naphyang	6	3.0	0	0	1	0.5	1	0.5	-5	-2.5	1	0.5		
Suddal-gumum	7	3.5	27	13.5	15	7.5	20	10	+8	+4.0	-7	-3.5		
Others					1	0.5			+1	+0.5				

\* A : I have performed it, now.

B : I will have performed it, continually.

C : B-A

(I = the replier)

명절행사에 마련하는 음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Table 3). 전체적으로 지역적 구분없이 고른 분포를 나타냈는데, 설날에는 떡국이 96.5%, 식혜가 87.3%, 만두가 76.0%로 가장 많이 마련하는 음식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서울에서는 시루떡, 닭산적, 고기산적, 충청에서는 약주 등이 있었다. 입춘에는 보리밥이 25.3%, 정월대보름에는 부럼이 89.8%, 오곡밥이 68.3%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팔죽, 충청은 식혜 등이 있었다. 삼월삼짇날에는 화전이 13.0%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잊혀져 가는 명절임을 알 수 있었으며, 한식에는 찬 음식(예로 한식면이라는 메밀국수가 있으며, 찬밥과 같이 전날 해 놓은 음식을 데우지 않고 먹는 것을 의미)이 26.3%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서울

은 편육, 전과, 충청은 송편이 있었다. 사월초파일에는 중편이 13.3%, 기타 의견으로는 절편이 있었는데, 불교신자가 조사자 중 서울 23.5%, 충청 32.5%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절과는 달리 특정인의 행사로 가정보다는 사찰들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월단오는 수리취떡이 19.0%로 낮게 나타나 잊혀져 가는 명절이라는 것을 짐작케 하였고, 기타 의견으로 충청은 미나리 나물, 미나리 김치가 있었다. 유월유두는 유두면이 7.3%, 수단이 5.0%로 나타났고, 기타 의견으로 충청에서 기름떡이 있었다. 삼복에는 삼계탕이 72.5%, 과일이 46.5%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개장국은 12.5%로 낮게 나타나 보신탕에 대한 주부들의 기피현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칠월칠

**Table 3.** The present state of preparing festive dishes

	Region	Seoul		Choongchung		Total	
	Dish	N	%	N	%	N	%
Sulnal	Tuckuk	189	99.0	197	98.5	386	96.5
	Yaksik	73	36.5	98	49.0	171	42.8
	Mandoo	115	57.5	189	94.5	304	76.0
	Kangjung	98	49.0	99	49.5	197	49.3
	Sikhye	173	86.5	176	88.0	349	87.3
	Jeun	166	83.0	163	81.5	329	82.3
	Phyenyuk	92	46.0	126	63.0	218	54.5
	Seju	55	27.5	68	34.0	123	30.8
	Others	18	9.0	23	11.5	41	10.3
Ipchun	Sangea	3	1.5	3	1.5	6	1.5
	Boribap	36	18.0	65	32.5	101	25.3
	Others	8	4.0	3	1.5	11	2.8
Jungwol -deaborum	Burum	180	90.0	179	89.5	359	89.8
	Imyungju	70	35.0	119	59.5	189	47.3
	Okokbop	104	52.0	169	64.5	273	68.3
	Mukeunnamul	117	58.5	142	71.0	259	64.8
	Yaksik	23	11.5	10	5.0	33	8.3
	Others	5	2.5	7	3.5	12	3.0
Samwol -samjitnal	Whajeon	19	9.5	33	16.5	52	13.0
	Tangphyungche	9	4.5	10	5.0	19	4.8
	Whache	10	5.0	19	9.5	29	7.3
	Whamyun	1	0.5	4	2.0	5	1.3
Hansik	Cold food	44	22.0	61	30.5	105	26.3
	Tuk	37	18.5	57	28.5	94	23.5
	Sool	26	13.0	26	13.0	52	13.0
	others	10	5.0	4	2.0	14	3.5
Sawol- chopail	Jungpyun	22	11.0	31	15.5	53	13.3
	Kangwhe	6	3.0	17	8.5	23	5.8
	Kongbokum	6	3.0	19	9.5	25	6.3
	Others	13	6.5	6	3.0	19	4.8
Dano	Surichituk	32	16.0	44	22.0	76	19.0
	Chehotang	2	1.0	5	2.5	7	1.8
	Jungpyun	8	4.0	21	10.5	29	7.3
Yuwol-Yudu	Sudan	12	6.0	8	4.0	20	5.0
	Sangwhabyung	3	1.5	5	2.5	8	2.0
	Sukyowhi	1	0.5	3	1.5	4	1.0
	Yudumyun	10	5.0	19	9.5	29	7.3
	Others	8	4.0	4	2.0	12	3.0
Sambok	Samgyetang	148	74.0	142	71.0	290	72.5
	Fruits	107	53.5	79	39.5	186	46.5
	Kejangkuk	21	10.5	29	14.5	50	12.5
	Others	1	0.5	2	1.0	3	0.8

Table 3. Continued

	Region	Seoul		Choongchung		Total	
	Foods	N	%	N	%	N	%
Chilwol -chilsok	Miljunbyung	34	17.0	42	21.0	76	19.0
	Kyechim	10	5.0	7	3.5	17	4.3
	Others	9	4.5	4	2.0	13	3.3
Chusok	Hyeopsalsool	46	23.0	66	33.0	112	28.0
	Songphyun	185	92.5	193	96.5	378	94.5
	Torantang	88	44.0	24	12.0	112	28.0
	Whayangjuk	49	24.5	39	19.5	88	22.0
	Yuldanja	6	3.0	15	7.5	21	5.3
	Hankwa	54	27.0	77	38.5	131	32.8
	Others	10	5.0	4	2.0	14	3.5
Jungyangjul	Kukwhaju	10	5.0	10	5.0	20	5.0
	Kukwhajeun	9	4.5	9	4.5	18	4.5
	Whache	9	4.5	5	2.5	14	3.5
	Yulran	1	0.5	19	9.5	20	5.0
	Bambap	7	3.5	18	9.0	25	6.3
	Dasik	8	4.0	17	8.5	25	6.3
	Others	6	3.0	3	1.5	9	2.3
Dongji	Patjuk	156	78.0	151	75.5	307	76.8
	Chunyak	0	0	1	0.5	1	0.3
	Others	0	0	0	0	0	0
Siwol -sangdal	Sirutuk	33	16.5	72	36.0	105	26.3
	Shinsunro	2	1.0	2	1.0	4	1.0
	Mandoo	1	0.5	0	0	1	0.3
	Kangjung	5	2.5	8	4.0	13	3.3
	Others	8	4.0	1	0.5	9	2.3
Naphyang	Sancheyuk	13	6.5	24	12.0	37	9.3
	Norujuk	5	2.5	6	3.0	11	2.8
	Chamseguhi	2	1.0	2	1.0	4	1.0
	Others	6	3.0	3	1.5	9	2.3
Suddal -gumum	Bibimbop	30	15.0	53	26.5	83	20.8
	Others	11	5.5	9	4.5	20	5.0

석에는 밀전병이 19%로 낮게 나타나 점점 잊혀져 가는 명절임을 알 수 있었고, 기타 의견으로 서울에서 호박부침, 개떡, 충청에서 미역국 등이 있었다. 추석은 송편이 94.5%, 한과가 32.8%였고, 기타 의견으로 서울에서 닭떡, 빈대떡, 충청은 무탕, 과일, 전과류 등이 있었다. 중앙절에는 국화전이 4.5%, 화채가 3.5%로 나타나 이 명절 역시 잊혀져 감을 알 수 있었다. 동지에는 팔죽이 76.8%, 시월상달에는 시루떡이 서울 16.5%보다는 충청 36.0%에서 충청

에서 더 많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향에는 산채육이 9.3%로 역시 잊혀져 가는 명절임을 알 수 있었고, 선달그믐은 비빔밥이 20.8%, 기타 의견으로는 서울에서 팔죽, 떡, 케익을 마련한다고 해 우리의 전통명절에 자연스럽게 서양음식이 끼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결과는 나문숙(1989), 허성미·한재숙(1993) 등의 것과 비슷한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sup>8,11)</sup>.

#### 4. 배경변인에 따른 명절상차림의 절차에 대한 의견과 인지도

명절시행에 있어 지역이 변수의 가치로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4). 그 결과 설날, 입춘, 정월대보름, 삼월삼짇날, 한식, 사월초파일, 단오, 유월유두, 칠월칠석,

중양절, 선달그믐 등에서 두 지역간에 명절시행의 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나라의 3대 명절인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중 추석만이 그 시행에 지역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각 가정에서 명절을 시행함에 지역적인 영향이 변수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앞의 결과에 따라 지역이 명절행사의 변

**Table 4.** Influence of the region on festive days

Festive days	Reg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t-value
Sulnal	Seoul	3.000	1.001	-0.86**
	Choongchung	3.200	1.238	
Ipchun	Seoul	0.225	0.442	-2.78**
	Choongchung	0.365	0.582	
Jungwol-deaborum	Seoul	3.328	1.000	-0.89**
	Choongchung	3.314	1.200	
Samwol-samjitnal	Seoul	0.215	0.529	-1.89**
	Choongchung	0.330	0.681	
Hansik	Seoul	0.555	0.884	-2.18*
	Choongchung	0.750	0.906	
Sawol-chopail	Seoul	0.185	0.438	-2.07**
	Choongchung	0.285	0.525	
Dano	Seoul	0.215	0.458	-2.79**
	Choongchung	0.360	0.576	
Yuwol-yudu	Seoul	0.135	0.384	-1.38**
	Choongchung	0.195	0.478	
Sambok	Seoul	1.425	0.910	1.83*
	Choongchung	1.260	0.892	
Chilwol-chilsok	Seoul	0.230	0.422	-1.06**
	Choongchung	0.280	0.513	
Chusok	Seoul	2.490	1.364	3.20*
	Choongchung	2.080	1.196	
Jungyangjul	Seoul	0.245	0.780	-1.23*
	Choongchung	0.345	0.848	
Dongji	Seoul	0.805	0.397	1.07*
	Choongchung	0.760	0.440	
Suddal-gumum	Seoul	0.175	0.381	-2.70**
	Choongchung	0.290	0.466	

\* p<.05, \*\* p<.01



**Table 5.** The opinions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n arrangement of the festive dishes with respect to (region, education, family system)

Item	Question	Opinions on arrangement of dishes			Degree of recognition on arrangement of dishes				
		According to now	Be simplified	More traditionally	Well known	Known	Not known		
Region	Seoul	N	59	126	15	26	163	11	
		%	29.5	63.0	7.5	13.0	81.5	5.5	
	Choongchung	N	64	125	26	64	131	5	
		%	32.0	62.5	6.5	32.0	65.5	2.5	
	Total	N	123	251	41	90	294	16	
		%	30.8	62.8	10.3	22.5	73.5	8.0	
Note		df=1, $\chi^2=2.689$ , N.S			df=2, $\chi^2=22.354$ , p<.0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Seoul	%	1.0	1.5	0.0	1.5	1.0	0.0
		Choong chung	%	13.5	30.0	1.0	16.0	33.0	1.5
	Middle school	Seoul	%	5.5	5.0	0.5	6.0	8.5	0.0
		Choongchung	%	8.5	30.0	0.0	9.0	26.0	3.5
	High school	Seoul	%	15.5	55.0	0.5	5.5	60.5	1.5
		Choongchung	%	7.5	3.0	0.0	5.0	4.5	1.0
	College or higher	Seoul	%	5.0	9.0	0.0	2.0	13.0	0.5
		Choongchung	%	0.0	0.5	0.0	0.0	0.5	0.0
	Total	N	123	273	4	90	296	14	
		%	30.8	68.2	1.0	22.5	74.0	3.5	
	Note		df=12, $\chi^2=9.848$			df=6, $\chi^2=21.407$ , p<.001			
	Family	Nuclear family	Seoul	%	26.0	54.0	3.5	12.0	56.0
Choongchung			%	25.0	42.0	5.5	18.5	65.5	2.0
Large family		Seoul	%	6.0	10.0	5.0	7.5	8.5	0.5
		Choongchung	%	4.5	21.0	1.5	7.0	17.0	1.5
Total		N	123	253	24	90	194	16	
		%	30.7	63.3	6.0	22.5	73.5	4.0	
Note		df=4, $\chi^2=7.171$			df=2, $\chi^2=8.763$				

수가 되므로, 지역·학력·가족형태의 변인에 따른 명절상차림의 절차에 대한 의견과 인지도를 알아 보았다(Table 5).

명절상차림의 절차에 대한 의견은 지역에 따라 「간소화」가 서울 63.0%, 충청 62.5%, 「지금 그대로」가 서울 29.5%, 충청 32.0%, 학력에 따라 「간소화」가 중졸이 충청 30.0%, 고등학교 졸업이 충청 30.0%, 서울 55.0%로 대다수 주부들이 지역차 없이

명절상차림이 간소화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간소화」가 핵가족의 경우 서울 54.0%, 충청 42.0%, 확대가족의 경우 서울 10.0%, 충청 21.0%, 「지금 그대로」가 핵가족의 경우 서울 26.0%, 충청 25.0%, 확대가족의 경우 서울 6%, 충청 4.5%로 나타나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만족하거나 간소화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것은 명절시행이 가족과 친지가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어 주기는 하지만 주부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부담을 주므로 간소화 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명절 상차림의 인지도는 지역에 따라서 「안다」가 서울 81.5%, 충청 65.5%, 「정확히 안다」는 서울 13.0%, 충청 32.0%이었고, 학력에 따라서 「정확히 안다」가 초등학교 졸업이 서울 1.5%, 충청 16%, 중졸이 서울 6.0%, 충청 9.0%, 고등학교 졸업이 서울 5.5% 충청 5.0%이었고, 「안다」는 초등학교 졸업이 서울 1.0%, 충청 33.0%, 중졸이 서울 8.5%, 충청 26.0%, 고등학교 졸업이 서울 60.5%, 충청 4.5%, 「전혀 모른다」는 전체 8% 미만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주부들이 명절 상차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학교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나, 충청 지역의 경우는 학력의 고하에 상관없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로부터 무의식중에 자녀에게 전승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나문숙의 연구(1989)와 그보다 먼저 시행된 조연숙의 연구(1986)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8,10)</sup>. 이것은  $\chi^2$ 검증결과 지역과 명절 상차림에 대한 지역별 인지도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과 학력에 따라서는  $p < .001$  수준으로 아주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반면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정확히 안다」가 핵가족의 경우 서울 12%, 충청 18.5%, 확대가족의 경우 서울 7.5%, 충청 7.0%, 「조금 안다」가 핵가족의 경우 서울 56.0%, 충청 65.5%, 확대가족의 경우 서울 8.5%, 충청 17.0%로 '확대가족이 핵가족에 비해 명절상차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다른 결과였으며, 이 역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주부들에게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명절에 대한 올바른 시행과 그 적절한 계승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대도시인 서울 지역과 소도시인 충청 지역으로 분류하여 그 지역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명절행사와 명절음식, 그리고 명절상차림에 대한 인지도와 의견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을 보면 학력의 경우 서울은 고등학교졸업, 충청은 초등학교 졸업이 많았으며, 월수입은 서울이 150~199만원, 충청은 100~149만원이 많았다. 이 두 지역 모두 핵가족의 비율이 높았으며, 전업주부가 63.8%이었다.
2. 명절시행과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하려는 명절로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이 85%로 높게 나타났다. 유월유두, 중앙절, 납향은 0.5%로 거의 소멸되는 명절로 나타났다.
3. 명절행사에 마련하는 전통음식은 설날에는 떡국, 정월대보름에는 부럼, 삼복에는 삼계탕, 추석에는 송편, 동지에는 팔죽 등이었으며, 음식수는 지역간 유의한 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4. 지역변인에 따른 명절행사는 설날, 입춘, 정월대보름, 삼월삼짇날, 사월초파일, 단오, 유월유두, 칠월칠석, 선달그믐 등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5. 명절상차림에 대해서는 지역·학력·가족형태 변인에서 대부분이 간소화를 희망하였으며, 상차림의 인지도는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의 명절행사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과 시행면에서 특수한 명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지역차이 없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의 시행 여부나 자녀 계승 여부에 대해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와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에 있어 우리가 사는 생활양식과 걸맞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아무리 전통이라도 우리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명절도 소멸되는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사회와 문화의 가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명절시행에 있어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담긴 명절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가정·학교·사회교육 및 대중홍보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명절행사와 음식을 전승

하려는 것은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 남아 있을 수 있는 “민족 뿌리”의 가치로서 재인식하고 이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 V. 참고문헌

1. 김원룡: 韓國考古學概論, 일지사, 서울, 22-59, 1986.
2. 강인희: 이경복, 韓國食生活史, 삼영사, 19, 19-84.
3. 신민자: 한국식생활문화의 어제와 오늘, 국민영양, 서울, 4, 14-18, 1986
4. 윤서석: 韓國飲食-歷史와 調理法, 수학사, 서울, 14, 1988.
5. 강인희, 이경복: 韓國食生活風俗, 삼영사, 158-161, 1984.
6. 구천서: 世界의 食生活文化, 향문사, 335, 1994.
7. 이두현, 이광규: 한국가정생활사,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6, 1985.
8. 나문숙: 세시풍속에 관한 주부들의 관심도 연구-청주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
9. 장주근: 한국의 세시풍속, 형설출판사, 57-314, 1984.
10. 조연숙: 전통음식에 관한 도시주부들의 의식조사-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11. 허성미, 한재숙: 세시풍속 및 세시음식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3(2): 83-97, 1993.
12. 이성우: 한국의 식품사회사, 교문사, 1984.
13. 임옥재: 歲時風俗에 관한 인식도 조사 연구-국민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건대부설중원연구소 논문집, 제4집, 1985.
14. 장명희: 韓國과 日本의 歲時風俗과 歲時食의 비교 研究,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15. 하순용: 古書에 담긴 韓國飲食에 관한 研究, 상명여대 논문집, 1972.
16. 고대민속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 제4권(세시풍속·전승놀이), 고대민속문화연구소 출판부, 1982.
17. 민속학회: 한국민속학 제15집, 민속원, 1982.
18. 윤서석: (改訂增補) 韓國食品史 研究, 신광출판사, 1993.
19. 윤서석: 한국의 전래생활, 수학사, 1988.
20. 임동권: 韓國歲時風俗, 서문문고 61, 1976.
21. 임동권: 韓國歲時風俗研究, 집문당, 9, 1983.
22. 조후종 외 6인: 서울 민속대관, 서울시, 1995.
23. 조후종 외 6인: 한국 음식대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24. 충청북도 문화공보 담당관실: 민속지, 고려서적주식회사, 1987.